

협약서

‘국민일보 주식회사’(이하 ‘국민일보’)와 ‘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’(이하 ‘한국상담대’)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자아 정체성 확립과 한국 교회의 공생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‘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’ 관련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[목적]

본 협약서는 한국 교회가 청소년들의 건강한 자아확립과 비전발견을 도울 수 있는 장으로서 기능 할 수 있도록, 국민일보와 한국상담대가 ‘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’을 개발, 보급하는데 목적이 있다. 이를 통해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할 뿐 아니라, 전 세대의 건강한 소통과 치유의 계기로 작용도록 한다. 나아가 한국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시키고, 기독교계 전체 발전에 기여한다.

제2조 [기본운영원칙]

1. 이 협약에 명시된 사항은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한다.
2. 이 협약에 명시된 사항으로서 세부사항이 필요하거나 명시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‘한국상담대’의 제 규정 범위 내에서 별도로 협의해 정한다.
3. 업무협력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, 분담한다.

제3조 [상호협력 분야]

이 협약에 의거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분야는 다음 각 호로 한다.

1. 산학협력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
2. 상담학의 기본원리와 통과의식 체험을 통해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는 기독교 상담 전문가를 양성을 위한 ‘기독교 상담 전문 지도자 과정’
3. 건강한 청소년성 회복을 위한 ‘청소년 캠프’
4. 전국 각지 교회의 목회자와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는 ‘소통 및 힐링 세미나’
5. 콘텐츠 교류를 통한 개발 및 보급 사업 추진

제4조 [협약서의 효력]

본 협약은 협약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되고, 그 유효기간은 발효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. 유효기간 만료 전 상호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
제5조 [비밀의 준수]

본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상대방이 요청한 기밀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행사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
‘국민일보’와 ‘한국상담대’는 협약서 2부를 작성해 상호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4년 11월 17일

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

총장 이혜성

이혜성

국민일보 주식회사

대표이사 사장 최삼규

최삼규